

“시대·장소 관통하는 ‘광주 정신’ 보여주고 싶었죠”

인/터/뷰 안미희 광주 파빌리온 전시감독

‘무등: 고요한 긴장’ 주제...연대·저항·정의로 연결된 3개 섹션 아카이브 자료부터 세대 간 기억, 사회이슈 다룬 작품 등 ‘다채’

“연대와 저항 그리고 정의. ‘광주 정신’을 말할 때 떠오르는 키워드예요. 현대적인 주제와 연결 지으면서도 은유적으로 표현해보고 싶었어요. 미래지향적인 광주 정신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작품들로요.”

해의 프로젝트 기획까지 다양한 사업을 두루 거치며 제 자신도 발전할 수 있었죠. 이런 점에서 광주가 지닌 지역성 그리고 지역 바깥에서 바라본 광주 정신을 누구보다 잘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지난 12일 제15회 광주비엔날레 광주파빌리온 ‘무등: 고요한 긴장’ 전시장에서 안미희 전시감독을 만났다.

안 전시감독은 광주 정신을 표현할 핵심적인 단서이자 전시 주제로 ‘무등’을 내세웠다. 이는 평등을 넘어 동시대적 맥락에서 능동적이고 구체적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태도로 해석된다.

7년 만에 광주 미술현장으로 돌아온 안미희 전시감독은 광주비엔날레와도 인연이 깊다. 2005년 광주비엔날레 전시팀장으로 재단과 연을 맺고 2010년 12월부터 정책기획팀장으로 재직하며 12년간 광주비엔날레와 함께 성장했다.

“무엇보다 젊은 세대들에게 광주 정신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관심을 뒀습니다. 5·18을 겪은 이들,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오월광주와 연대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미래세대가 인식하는 현재의 광주, 학자들의 연구 보고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본 기록까지 통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광주비엔날레 정책, 발전 방안과 관련한 논문을 써 박사 학위를 받기도 했어요. 전시 업무부터 정책 연구,



제15회 광주비엔날레 광주파빌리온 ‘무등: 고요한 긴장’ 전시장에서 작품에 대해 이야기하는 안미희 전시감독.

“이 세 개의 섹션은 명확하게 구분되기보다는 느슨하게 묶이고 서로를 지지하는 분위기로 구성돼 있습니다. 일일이 설명하려 하기보다는 전시의 전체적인 흐름을 따라 자연스럽게 광주 정신을 드러내려 했어요. 시대와 장소를 관통하며 모든 존재를 아우르는 ‘무등’의 의미를 다시 한번 떠올려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세 개의 섹션은 명확하게 구분되기보다는 느슨하게 묶이고 서로를 지지하는 분위기로 구성돼 있습니다. 일일이 설명하려 하기보다는 전시의 전체적인 흐름을 따라 자연스럽게 광주 정신을 드러내려 했어요. 시대와 장소를 관통하며 모든 존재를 아우르는 ‘무등’의 의미를 다시 한번 떠올려볼 수 있길 바랍니다.”

“세대의 기억을 연결하며 치유와 공감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 심각한 사회적 이슈에 모른 척 하지 않고 이를 들여다보는 것. 광주 정신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무등이 품은 오랜 시간과 가치가 어느 한 곳에 고이지 않고 더욱 폭넓은 맥락에서 논의됐으면 좋겠어요.”

무등의 화두는 마지막 섹션 ‘지속할 수 있는 정의’로까지 나아간다.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변해간 무등산을 비롯한 지구 공동체의 기후위기, 자연을 향한 인류의 예곡된 태도를 돌아보게끔 하는 작품들이 전시장에 펼쳐진다. 상상 속 무등의 풍경을 그려낸 이강하 작가의 ‘무등산의 봄’이 전시 말미를 장식하며 관람객들에게 진한 여운을 남긴다.

“이 세 개의 섹션은 명확하게 구분되기보다는 느슨하게 묶이고 서로를 지지하는 분위기로 구성돼 있습니다. 일일이 설명하려 하기보다는 전시의 전체적인 흐름을 따라 자연스럽게 광주 정신을 드러내려 했어요. 시대와 장소를 관통하며 모든 존재를 아우르는 ‘무등’의 의미를 다시 한번 떠올려볼 수 있길 바랍니다.”

/최명진 기자

쥘리 물들여 쌓인 아름다움

조선섬유조형회 동문전...내달 1일까지 광주예당 갤러리

40여 년에 걸쳐 섬유예술의 조형성과 실용가치에 대해 끊임없이 모색해오고 있는 조선섬유조형회 동문전이 마련됐다.



배강희작 '파동'

다음달 1일까지 광주예당의전당에서 열리는 조선섬유조형회 특별전 ‘쥘리 물들여 쌓인 아름다움’으로 위로하다이다.

조선섬유조형회는 1986년 조선대 미술대학에서 섬유디자인을 전공, 졸업한 작가들을 중심으로 설립됐다. 올해로 39회를 맞는 동문전에는 노은희·정예금·한선주 교수를 비롯한 섬유작가

20명이 참여했다. 염색·직조·태피스트리·펠트·니트·한지 등 다양한 물성의 섬유 소재를 이용한 작품 35점을 만나볼 수 있다. 재료를 재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업사이클링 작품도 선보인다. 수공예적 기법과 이를 확장한 오브제 및 설치 작품도 전시 중이다.

또한 전시기간 다양한 섬유 매체의 물성을 시각과 촉각으로 느끼며 예술 경험을 즐길 수 있는 관람객 참여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최명진 기자

‘歎香, 예인의 향기를 기리다’

무형유산이음터 락이 공연, 17일 순천문화예술회관

전 세대가 향유하는 전통춤으로써 수당 정명숙 명무의 예술혼을 기리는 의미있는 공연이 마련됐다.

무형유산이음터 락이 기획공연 ‘2024 예인의 향기를 기리다, 흠향(歎香)’이 17일 오후 4시 순천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예인의 향기를 기리다, 흠향’은 무형유산 전승·보존을 위해 헌신해온 국가무형유산 선성님들의 작품 시연 과정을 통해 문화유산의 가치를 이해하고 문화 정체성 기반을 마련하는 공연이다.

올해 프로그램은 고 정명숙 선생의 전통춤을 바탕으로 꾸며졌

다. 공연은 학의 비상과 봉황의 승천을 담아낸 정명숙류 승무 ‘피어오른 성운이 하늘에 닿아’ 무대를 막을 올린다. 이어 ‘세상 만물이 춤을 추어라’를 주제로 김수악류 진주교방굿거리가 펼쳐진다.

다음으로 정명숙류 장고춤이 경기민요의 부드러운 음색과 함께 장구의 경쾌한 리듬으로 관객들을 만난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이 생강류 대금산조 ‘젓대소리 울리나니’ 무대에 이어 슬픔을 삼켜내며 환희와 신명의 세계로 승화시킨 정명숙류 살풀이춤이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최명진 기자

포용·만남의 공간 ‘경계’를 마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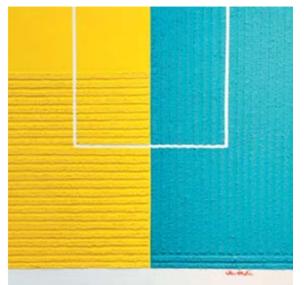
서유나 19번째 개인전...오는 30일까지 장덕갤러리

수많은 선이 모이고 그 선들이 면을 이루며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낸다. 그 변화의 과정은 마치 우리가 마주하는 하루하루의 삶과도 같다.

서유나 작가의 19번째 개인전 ‘경계’가 오는 30일까지 장덕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삶의 중요한 부분인 ‘경계’의 다양한 의미를 담아낸 신작 시리즈, 순수한 삶의 자유 정신을 나타낸 새 연작 등 20여점을 선보인다. 돌을 나누는 선이 아닌, 삶의 다양한 관계와 서로 간의 소통을 담아낸 작품들이다.

작가는 “내 그림에서 ‘경계’는 서로를 포용하는 통로이자 만남에서 생겨나는 상대적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지



‘경계’

닌다”며 “복잡한 현대사회 속 휴식과 마음의 평온함을 안겨주는 작품을 통해 일상 속 피로가 치유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후끈한 열기! 시원한 샷~!
이보다 더 좋은 운동이 있을까요?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스포츠

파크골프 무료레슨

전일파크골프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차로 26(전일상사 2층) 문의 062)368-5779 / 010-4645-5778